(769)

조 선

주체109
(2020)
8

차　례

표지: 삼지연대기념비 부주제조각군상 《진군》편　사진 김성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 긴급소집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이행할데 대한 결정 채택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개성시에 치명적이며 파괴적인 재앙을 초래할수 있는 위험이 조성된것과 관련하여 7월 25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비상확대회의를 긴급소집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회의에 참가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위임에 따라 **김정은**동지께서 회의를 운영집행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지난 6개월간 전국적으로 각 방면에서의 강력한 방어적방역대책들을 강구하고 모든 통로들을 격폐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경내에 악성비루스가 류입되였다고 볼수 있는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데 대하여 지적하시고 이와 관련한 보고가 있은 직후인 24일 오후중으로 개성시를 완전봉쇄하고 구역별, 지역별로 격폐시키는 선제적인 대책을 취한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조성된 사태에 대처하여 해당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시고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이행하며 특급경보를 발령할데 대한 당중앙의 결심을 천명하시였다.

회의에서는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이행할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가 전원일치로 채택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모든 회의참가자들이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즉시 따라세우고 각급 당조직들과 각 부문이 당중앙의 지시와 포치에 무한한 책임성과 충실성과 헌신성을 가지고 가장 정확한 집행을 보장하고 담보할데 대하여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모두가 비상사태에 직면한 현실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사고와 행동의 중심을 잃지 말고 책임성과 헌신성을 안고 당중앙의 령도에 충실하고 철저하며 당중앙의 두리에 더욱 굳게 단결하여 닥쳐드는 방역위기를 타개함으로써 반드시 우리 인민의 안녕과 조국의 안전을 사수하자고 호소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7돐을 맞으며 공화국무력의 주요지휘성원들에게 《백두산》기념권총을 수여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7돐을 맞으며 7월 26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공화국무력의 주요지휘성원들에게 《백두산》기념권총을 수여하시고 그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 67돐에 즈음하여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찾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7돐에 즈음하여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찾으시고 인민군렬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조선인민군 차수 박정천동지와 군지휘관들이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에 꽃송이를 진정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값비싼 희생으로 조국을 수호하고 강대한 국가의 초석을 닦은 위대한 년대의 영웅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가렬한 전쟁의 포화속에서 혁명의 고귀한 정신적유산을 마련한 1950년대 조국수호자들의 불멸의 공훈은 청사에 길이 빛날것이라고 하시면서 렬사들의 영웅적투쟁정신은 사회주의조선의 영원한 넋으로 이어지게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제6차 전국로병대회에 참석하시여 축하연설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당과 정부의 위임에 따라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예순일곱돐에 즈음하여 제6차 전국로병대회에 참가하신 전쟁로병동지들과 전체 조국해방전쟁참전자들, 전시공로자들에게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또한 조국의 통일독립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성전에 고귀한 생을 바친 유명무명의 혁명렬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삼가 드린다고 하시면서 이 기회에 우리 인민의 혁명전쟁을 피로써 도와주며 전투적우의의 참다운 모범을 보여준 중국인민지원군 렬사들과 로병들에게도 숭고한 경의를 표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7.27이 없었다면 현 세계에서 가장 존엄있고 자주적인 강국, 인민의 나라로 영광떨치는 사회주의조선의 오늘도 없었을것이며 아시아와 전세계를 저들의 지배권에 두려는 제국주의의 오만한 시도도 막아내지 못하였을것이라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전후 사회주의혁명과 건설의 위대한 새 력사를 방향짓게 하고 우리 조국과 인민이 영원히 승리해나갈수 있는 긍지높은 전통과 재부를 마련하였으며 세계의 정치구도를 변화시키고 자주와 사회주의에로 나아가는 시대의 흐름을 힘차게 추동한 여기에 7.27이 가지는 또 하나의 거대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리는 자주권과 생존권이 담보되여야 행복을 가꾸고 키울수 있으며 국가와 인민의 운명을 지키자면 자기의 힘이 강해야 한다는 진리를 항상 명심하고 누구도 범접할수 없는 최강의 국방력을 다지는 길에서 순간도 멈춰서지 않을것이라고 확언하시였다.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열백번 바뀐다 해도 전승세대의 영웅적투쟁정신과 불멸의 위훈은 영원히 우리 후대들의 심장에 뛰는 붉은 피를 더욱 진하게 해줄것이며 그 위대한 정신과 업적은 우리 혁명의 승리적전진과 더불어 영원불멸할것이라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존경하는 전국의 로병동지들이 오래오래 건강장수하여 영원히 우리의 힘이 되고 마음의 기둥이 되여주실것을 진심으로 부탁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7돐을 맞으며

전승의 자랑찬 력사와 전통을 빛내여가는 승리자들의 환희가 온 나라에 차넘치는 속에 7월 27일 평양의 4. 25문화회관에서는 제6차 전국로병대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대회에 참석하시였다.

1950년대의 조국수호성전에서 무비의 용감성과 희생성을 발휘한 전쟁로병들과 전시공로자들이 대회에 참가하였다.

도당위원장들과 성, 중앙기관, 무력기관 일군들, 혁명학원 교직원, 학생들, 평양시안의 청년학생들이 대회에 참가하였다.

전쟁로병들과 함께 대회주석단에 나오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열화같은 흠모와 신뢰의 정을 담아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리는 참가자들에게 뜨거운 답례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뜻깊은 축하연설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에서 불멸의 위훈을 세우고 고귀한 투쟁정신을 창조한 전승세대의 영웅적삶을 값높이 평가하시였으며 전쟁로병들이 새 세대들에게 1950년대의 시대정신을 신념의 피줄기로 굳건히 이어주리라는 크나큰 믿음을 표시하시였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참전자들에 대한 값높은 평가와 존경, 숭고한 동지적사랑과 고결한 혁명적의리가 넘치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축하연설은 대회참가자들의 심장을 세차게 격동시키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연설을 마치시자 또다시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장내를 진감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전쟁로병들을 위대한 력사를 창조한 귀중한 스승으로, 자주강국의 터전을 다진 주인공으로 값높이 내세워주시며 온갖 은정을 다 돌려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감사를 삼가 드리였다.

대회에서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강사와 **김일성**종합대학 학생, 조선인민군 군관이 토론하였다.

대회장은 전쟁로병들을 혁명의 로세대로, 나라의 귀중한 보배로 아끼고 내세우며 참된 삶을 빛내여주는 조선로동당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에 보답할 전체 참가자들의 충성의 열의로 세차게 끓어번지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위훈을 세운 전국의 모든 전쟁로병들에게 다시한번 열렬한 축하를 보내시며 뜨거운 인사를 보내시였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7돐을 맞으며 온 나라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은 평양의 만수대언덕을 비롯하여 전국각지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과 태양상을 찾아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7월 27일 각지에 있는 렬사들의 동상과 렬사릉, 인민군렬사추모탑, 렬사묘들에 화환과 꽃다발, 꽃송이들이 진정되였다.

제6차 전국로병대회 참가자들은 7월 27일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찾았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명령을 높이 받들고 제국주의의 강도적인 무력침공을 짓부시는 성전에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친 인민군렬사들을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렬사들의 묘비에 꽃송이를 진정한 로병들은 로동당의 품속에서 영생의 삶을 누리는 전우들의 값높은 생을 감회깊이 추억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은 제6차 전국로병대회 참가자들을 위하여 27일 연회를 마련하였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7돐을 경축하는 축포발사가 7월 27일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끝없이 터져오르는 경축의 축포를 격정속에 바라보며 군중들은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탁월한 전략전술로 제국주의강적을 타승하시고 강국의 튼튼한 초석을 마련하여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았다.

누리를 밝게 비치는 불의 황홀경은 군중들의 심장마다에 또 한분의 희세의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높이 모시여 승리는 영원한 조선의것이라는 확신을 더욱 깊이 새겨주었다.

사진 조선중앙통신 글 김필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하시던 시기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민족재생의 봄을 안아오시여

주체21(1932)년 4월 25일 반일인민유격대가 창건되였다.

해마다 조국해방의 날(8. 15.)을 맞이할 때면 조선인민은 민족재생의 길을 열어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더욱 뜨겁게 되새겨보군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에 대한 일제의 군사적강점으로 말미암아 온 민족이 수난을 겪고있던 지난 세기 전반기 포악무도한 침략자들과의 전면대결전을 선포하시고 민족해방투쟁을 조직령도하시였다.

유격전을 기본형식으로 하는 독창적인 무장투쟁로선을 제시하신 그이께서는 주체21(1932)년 4월 25일 조선인민의 첫 혁명적무장력인 반일인민유격대(그후 조선인민혁명군으로 개편)를 창건하시였다.

국가적인 후방도 정규군의 지원도 없는 조선인민혁명군과 신식무장장비를 갖추고 아시아의 《맹주》로 자처하는 일제와의 대결은 그야말로 간고하고 험난한 투쟁의 련속이였다.

집요하게 달려드는 원쑤들과의 치렬한 전투와 가슴아픈 희생, 모진 추위와 굶주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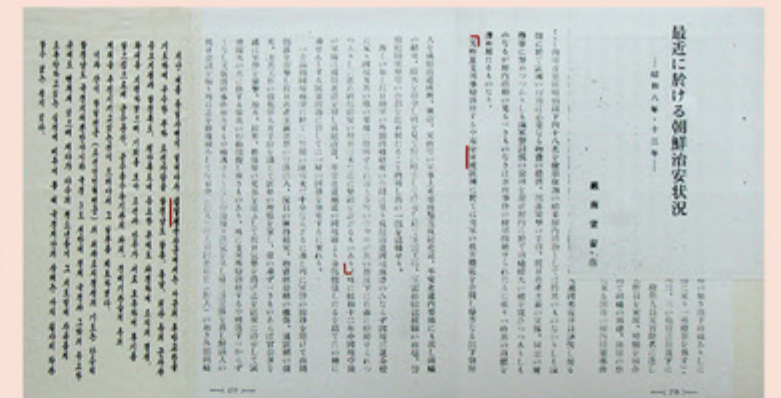
걸음걸음 시련과 난관이 겹쌓였으나 강철의 의지와 무비의 담력, 비범한 예지를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의 민족해방투쟁은 계속 줄기차게 전진하였다.

그이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매 단계, 매 시기마다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앞당기기 위한 정확한 로선과 전략전술을 제시하시였다.

뿐만아니라 어떤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주체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적들의 수적 및 군사기술적우세를 혁명군대의 정치사상적 및 전략전술적우세로 타승할데 대한 독창적인 군사사상을 내놓으시고 그것을 무장투쟁의 전기간 일관하게 견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립하시고 령도하신 조국광복회 주요조직분포도
주체25(1936)년 5월-주체34(1945)년 8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33(1944)년 7월 전국조국광복회조직책임자회의를 지도하신 장소

조국광복회조직이 확대강화된데 대한 당시 조선총독부 경무부자료 《최근에 있어서의 조선치안상황》의 일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지휘밑에 주체26(1937)년 6월 4일 진행된 보천보전투는 반일항전에 떨쳐나선 조선인민의 기개를 보여주었으며 자유와 정의를 위해 싸우는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반제반파쑈투쟁에 고무적영향을 주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계시던 백두산밀영사령부

항일혁명투사들이 쓴 구호문헌중에서

《동포들이여
민족의 령수 김대장따라 항일전에 힘있게 나서자》

《우리모두 독립의 날 부끄럽지 않게
항일의 한초한초를 값있게 살자》

《항일대전승리 만세》

8.15 해방작전에 있은 사실
회의가 되였다. 당시 공동작전계획을 세우고
전국에 부대를 파견하기로 했다.

조국해방을 위한 최후공격작전계획과 관련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친필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맞이하기 위하여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있는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무조건항복을 보여주는 사진자료들

그리고 유격전의 전략전술적원칙과 전법들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발전풍부화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전사들에 대한 가장 숭고한 동지적사랑과 믿음으로 항일무장대오의 사상의지적, 도덕의리적단합을 이룩하시였다.

이와 함께 뜨거운 인간애와 넓은 도량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굳게 믿고 묶어세워 조국해방을 위한 투쟁의 길에 내세워주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을 핵심으로 하는 주체적력량을 튼튼히 마련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4(1945)년 8월 9일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통찰하시고 조국해방을 위한 총공격명령을 하달하시였다.

그에 따라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과 함께 국내외에 조직되여 활동하던 모든 항쟁력량들이 떨쳐나 곳곳에서 일제침략군을 소멸하고 적통치기관들을 점거하였다.

주체34(1945)년 8월 15일 일제는 무조건항복을 선언하였으며 조선인민은 근 반세기에 걸치는 일제의 군사적강점하에서 해방되였다.

삼천리강토는 해방의 기쁨으로 들끓었고 온 민족이 위대한 수령님을 끝없이 경모하며 그이의 조국개선을 일일천추로 고대하였다.

평양과 서울 등에서 **김일성**장군환영준비위원회가 조직되고 여러가지 성대한 환영사업이 조직되였다.

조국개선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에서 연설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34(1945)년 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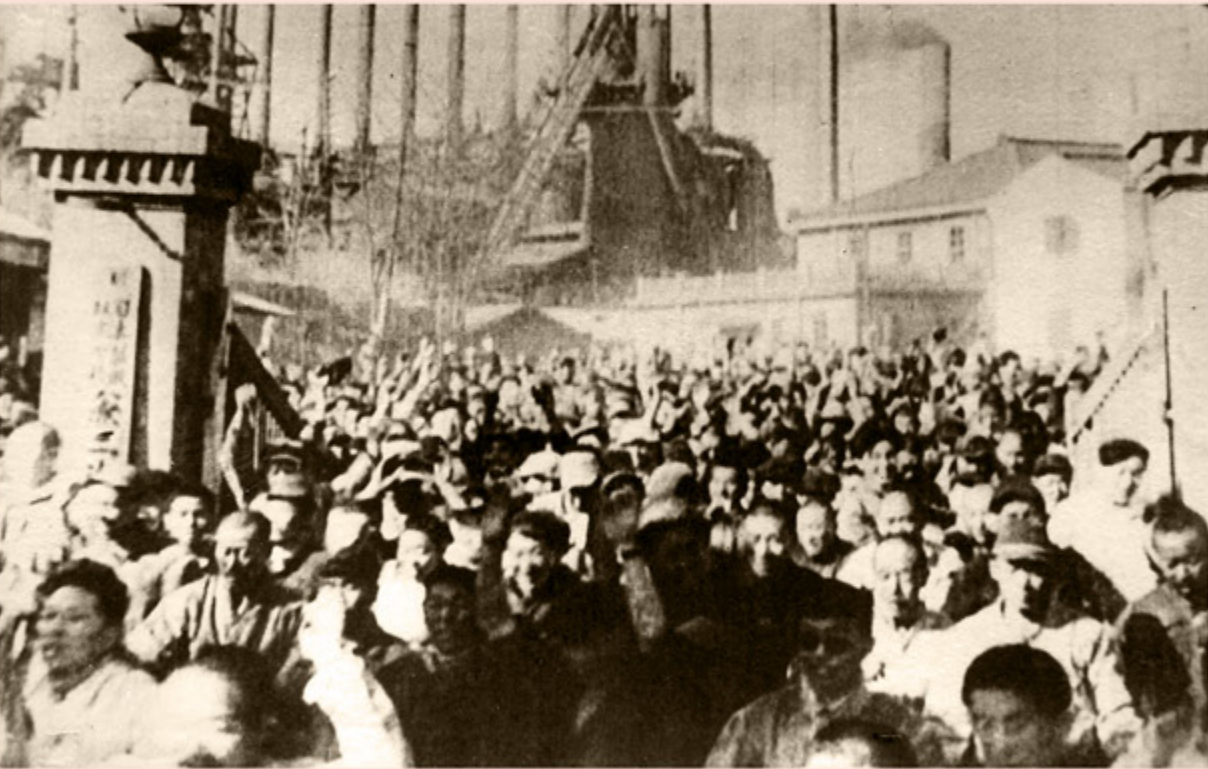
허나 고향집의 사립문을 나서신 때로부터 20성상 혈전의 불바다를 헤치시며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너무도 조용히 조국에 개선하시였다.

그리고 새 조국건설을 위하여 고향 만경대를 지척에 두시고도 강선제강소(오늘의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등을 먼저 찾으시고 당창건위업을 실현하신 다음에야 조국인민들과 력사적인 상봉을 하시였다.

그날은 주체34(1945)년 10월 14일이였다.

평양과 그 주변은 물론 사리원과 해주, 신의주, 강계, 원산, 함흥 등지에서 수십만의 군중이 모여와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며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치였다.

그 환호성은 민족적숙원을 이룩하신 그이에 대한 전체 조선인민의 다함없는 감사의 분출이였고 그이를 높이 받들고 새 조국건설에 떨쳐나설 각오와 맹세의 분출이였다.

글 김선경

해방의 환희에 넘쳐있는 인민들

피델 까스뜨로 루쓰 꾸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과 담화를 나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75(1986)년 3월

피델 까스뜨로 루쓰 꾸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과 상봉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75(1986)년 3월

꾸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 겸 내각수상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동지와 상봉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주체107(2018)년 11월

변함없이 이어지는 친선의 력사

올해 8월 29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꾸바공화국사이의 외교관계설정 60돐이 되는 날이다. 이날에 즈음하여 조선인민은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힘차게 전진하는 영웅적꾸바인민에게 형제적 인사를 보내고있다.

꾸바인민은 간고한 무장투쟁을 벌려 1959년 친미독재정권을 뒤집어엎고 꾸바력사상 처음으로 진정한 인민의 정부를 수립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라틴아메리카에서 사회주의혁명의 시초를 열어놓은 꾸바인민을 적극 지지하는것을 신성한 국제주의적의무로 여기고 주체49(1960)년 8월 꾸바공화국과 외교관계를 설정하였다.

조선과 꾸바사이에 외교관계가 설정된 후 두 나라 인민은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공동투쟁에서 서로 긴밀히 지지하고 협조하여왔다. 꾸바인민은 사회주의를 건설하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었다. 조선인민 역시 언제나 꾸바인민의 편에서서 제국주의자들의 반꾸바책동을 견결히 반대하였으며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고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그들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꾸바혁명의 지도자 피델 까스뜨로 루쓰동지에 의하여 굳건히 마련된 친선적인 관계는 지난 세기 90년대의 세계적인 대정치풍파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으며 세기를 이어 계속 발전하였다.

꾸바공화국 주석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동지가 주체107(2018)년 11월 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 겸 내각수상으로서 조선을 방문한것은 반제, 자주, 사회주의를 위한 공동의 투쟁속에서 맺어진 두 나라사이의 친선의 정을 더욱 두터이하는 계기로 되였다.

조선인민은 꾸바공산당의 령도밑에 꾸바인민이 적대세력들의 온갖 도전과 책동을 짓부시면서 사회주의위업을 수호하고 나라의 부강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성과를 이룩할것을 진심으로 바라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꾸바공화국사이의 친선협조는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발전되고있다.

삼지연시에 높이 모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

변모된 삼지연시의 첫 여름

현대문명이 응축된 산간도시의 전형, 본보기로 새롭게 일떠선 량강도 삼지연시에 여름이 왔다.

삼지연군 읍(당시)지구에 있던 낡은 건물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수백정보의 부지에 4 000여세대의 소층, 다층살림집들과 380여동의 공공 및 산업건물들이 솟아나 옹근 하나의 도시가 형성된 지난해말 백두산기슭에 위치하고있는 이 군은 시로 승격되였다.

베개봉전망대에 오르면 더욱 짙어가는 백두의 천연수림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 시의 전경이 한눈에 안겨온다.

이곳에서는 모든 거리들을 다 돌고돌아도 꼭같이 생긴 아빠트를 찾아보기 힘들다. 밀영거리의 광명성동에는 꽃동산을 방불케 하는 소층 살림집들이 민족적특성을 살리며 오붓하게 들어앉아있고 리명수거리의 베개봉동에 가면 현대적인 고층살림집들을 볼수 있다. 청봉거리의 봇나무동에 자리잡고있는 살림집들은 또 얼마나 특색있는가.

생산구획과 생활문화구획으로 구분되여있는 공장과 기업소들 그리고 학교와 병원, 도서관, 문화회관, 체육관, 호텔과 식당 등도 여름철과 더불어 자기의 모습을 더한층 돋구고있다.

거리마다 종비나무, 봇나무를 비롯한 가로수들이 푸른 잎새를 한껏 펼치고 도처에 시원한 록지가 펼쳐져 도시의 아름다움을 더해주고 있다.

날이 갈수록 이곳에서는 시민들과 청소년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더 높이 울려퍼지고있다.

사진 김성철 글 정기상

삼지연시의 광명성동, 베개봉동, 봇나무동, 이깔동을 비롯한 여러곳에 수종이 좋은 나무들이 록음을 펼쳐 도시의 풍치를 더욱 이채롭게 하고있다.

현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는 청년과학자들

첨단과학기술의 개척자들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 창조와 위훈의 자욱자욱을 새겨가는 청년들속에는 국가과학원의 청년과학자들도 있다.

새것에 대한 창조, 이것은 국가과학원의 청년과학자들의 리상이고 목표이다.

최근년간에만도 그들은 첨단과학기술분야들을 개척하고 발전시키며 주요공장, 기업소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사업에서 큰 전진을 이룩하였다.

프로그람기술과 미소전자기술, 생리활성물질생산기술, 나노기술을 비롯한 첨단기술개발에서 청년과학자들은 핵심적이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있다.

정보과학기술연구소의 청년과학자들은 원료와 연료, 설비의 국산화에 중심을 두고 공장, 기업소들을 현대화하며 통합생산체계들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서 핵심적역할을 하였다.

지질학연구소의 청년연구사들은 여러 지역에 매장되여있는 유용자원의 분포정형을 과학적으로 확증하고 그 탐사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짧은 기간에 훌륭히 해결하였다.

수리공학연구소, 나노재료연구소, 미생물학연구소 등의 청년과학자들도 힘과 열정이 샘솟는 청춘시절에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더 많이 일할 각오를 안고 사색과 탐구의 낮과 밤을 이어가며 가치있는 연구성과들을 수많이 이룩하였다.

그 과정에 청년과학자들속에서는 학위학직소유자대렬이 급속히 늘어나고있다.

사진 박창복

글 김미예

꿈을 실현한 《소녀》

오은별이 6살때 그린 조선화 《우리모두 달나라동산 구경가요》(우)와 9살때 그린 조선화 《우리들이 사는 땅은 얼마나 아름다운가》(아래)

만수대창작사 조선화창작단 미술가 오은별

나라의 종합적인 미술창작기지인 만수대창작사의 조선화창작단에는 인물화를 특별히 잘 그리는 미술가인 오은별도 있다.

그는 어릴적부터 미술신동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자아냈다.

미술가였던 아버지 오광호의 재능을 그대로 넘겨받았는지 걸음마를 떼기 전부터 손에 여느 놀이감보다 크레용이나 붓을 먼저 쥐던 그였다.

하여 은별이가 2살때 탁아소의 보육원들은 토의끝에 그를 업고 평양미술대학에 찾아갔다. 당시 선교구역 장충동에 있은 그의 집이나 탁아소에서 대학은 그리 멀지 않았다.

은별의 천성적인 소질은 대학의 이름있는 교원이였던 최성룡의 관심을 끌었다.

하나를 배워주면 둘, 셋을 받아들이는 은별의 재능은 엄격한 스승이였던 그까지도 드문히 감동시키군 하였다.

그는 그림을 배우기 시작한 첫 1년동안에만 하여도 근 400점의 정물화를 그렸다.

5살때부터는 전문가들치고 그를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되였다.

그리고 제12차 세계청년학생축전(1985년)에서 그가 그린 그림이 널리 알려진 이후 여러 국제미술전람회들과 국제어린이그림현상모집에서 그의 작품들이 특별상, 금메달 등을 수여받고 여러 나라들에서 개인미술전람회까지 진행되면서 오은별은 국외에까지 명성을 떨치게 되였다.

중학교과정을 마치고 그는 평양미술대학 조선화학부에 입학하여 박사원과정까지 마쳤다. 이 기간에 그는 대학창립을 맞으며 진행된 2차의 전람회들과 주체91(2002)년에 열린 전국신인미술전람회에서 각각 1등을 쟁취하였다. 주체92(2003)년에는 국가미술전람회의 입상자가 되여 교원들과 전문가들을 놀래웠다.

대학졸업후 그는 소원대로 현재의 창작기지에 자리를 잡았고 1년만인 주체97(2008)년에는 조선화 《삼복철의 깊은 밤에도》를 내놓았다.

이 작품은 그해에 진행된 국가미술전람회에서 1등으로 당선되였다.

지금까지 그가 창작한 수많은 조선화들중에서 국가미술전람회를 비롯한 여러 전람회들에서 상장과 메달들을 수여받고 국가소장품으로 등록된 작품들이 적지 않다.

그렇지만 그는 명화가로 되기보다 그 명예를 계속 고수하는것이 몇갑절 힘들다고 털어놓는다.

문학과 음악을 좋아하는 그는 여가시간을 독서와 노래감상으로 보내군 한다.

자신의 성장때처럼 그도 신인미술가들의 창작사업을 적극적으로 방조해주고있는데 그중에는 동생인 오옥별도 있다.

올해 40살이 되지만 그의 모색이나 행동거지에서 미술신동으로 소문났던 1980년대의 모습은 아직도 뚜렷하다.

사진 리다정 글 김선경

오은별의 작품들중에서

오은별이 국제어린이그림현상모집에서 7살때 받은 1등상장(우)과 9살때 받은 특별상장(아래)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진행된 미술전람회에 참가하여

푸른 하늘에로

평양시항공구락부의 선수들은 공화국선수권대회를 비롯하여 해마다 진행되는 항공체육경기들에서 항상 앞자리를 차지한다.

구락부에서는 명석하고 종목별선수로서의 적성체질을 갖춘 청소년들을 선발하여 기초훈련단계때부터 정확한 기술을 습득하도록 이끌어 전도유망한 선수들로 키우는것과 함께 현대적인 훈련 및 측정기재들을 도입하여 훈련의 효과성을 높이고있다.

최근에만도 자유비행엔진기를 접이식으로 제작한것을 비롯하여 여러 경기종목의 모형항공기들을 훌륭하게 만들고 상승기류탐지기 등 훈련과 경기에 리용할 발명품들을 새롭게 제작하였다.

선수들은 설계와 제작, 날리기기술의 집합체인 모형항공기술을 완벽하게 체득하고 경기마다에서 우승하기 위하여 좋은 날이나 궂은날이나 훈련장을 떠나지 않고있다.

사진 리명국

글 김필

박 연 폭 포

개성시에는 예로부터 조선에서 3명폭의 하나로 유명한 박연폭포가 있다.

높이가 37m, 너비가 1.5m인 폭포는 떨어지는 물의 속도가 빠르고 그 소리 또한 요란하다.

폭포의 우에 있는 너럭바위가 바가지모양으로 패워 이루어진 둘레 24m, 직경 8m, 깊이 5m정도의 못을 박연이라 하고 폭포의 밑에 있는 둘레 120m, 직경 40m정도인 못은 고모담이라 부른다.

고모담의 한쪽에는 물에 잠겨 웃부분만 드러낸 룡바위가 있고 서쪽언덕에는 범사정이라는 정자가 있다.

여러 력사유적들도 있는 박연폭포일대는 철따라 아름다운 절경을 펼치며 찾아오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찬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사진 박창복
글 정기상

양떼흐르는 부전호반

예로부터 조선8경의 하나로 꼽히는 함경남도의 부전고원에서는 고원지대의 자연풍경과 아름다운 계곡미, 동쪽으로 아득히 바라보이는 조선동해의 해돋이 등 특이한 절경들을 볼수 있다.

해발높이가 2 000m안팎의 높은 산들로 둘러싸인 고원의 가운데는 부전호가 남북으로 길게 자리잡고있다.

록음이 우거지면 《산중바다》로 불리우는 이 인공호수가를 따라 구름처럼 흐르는 양떼의 모습이 자연의 풍치를 더욱 돋구어준다.

부전호의 남쪽에 위치하고있는 호반리는 양기르기에서 전국에 소문난 고장이다.

이곳에서는 전국적으로 가장 추운 지역에 속하는 자기 고장의 특성에 맞는 우량품종을 도입하는것과 함께 양의 생리적특성과 생활습성에 적합한 사육방법을 받아들여 해마다 마리수를 계속 늘이고있다.

방목공들은 따스한 계절이 시작되면 호반의 자연풀판과 산등판들에 조성한 인공풀판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면서 집단사육과 분산사육을 활발히 진행하고있다.

이곳에서는 농장뿐아니라 매 가정들에서도 양을 많이 치고있다.

농장에서는 양사육에서 쌓은 좋은 경험들을 일반화하면서 작업반별, 세대별로 경쟁을 적극 조직하고있다. 또한 각지의 방목지들과 모든 세대들에 있는 집짐승들에 대한 수의방역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발병률과 페사률을 극력 줄이고있다.

이곳에서 나는 양고기와 털, 가죽은 질이 높은것으로 전국에 이름났으며 해마다 많은 양털이 함흥모방직공장으로 수송되고있다.

그와 더불어 여기 산골사람들의 생활도 계속 향상되고있다.

사진 최원철 글 박병훈

태성리의 오늘

평양에서부터 청년영웅도로를 타고 차를 달리면서 남포시 강서구역경내를 얼마간 지나느라면 왼편으로 아름다운 농촌마을의 전경이 펼쳐진다.

나지막한 언덕을 따라 규모있게 자리잡은 이 주민지구가 강서구역 태성리의 소재지마을이다.

태성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여러차례 찾으시여 농민들의 생활형편을 알아보시고 잘살수 있는 방도도 가르쳐주신 뜻깊은 고장이다.

1950년대말에 남포시의 관개체계에서 기본수원으로 되는 태성호가 건설되면서 지금의 자리로 옮겨진 소재지마을은 리안의 다른 마을들과 더불어 년대를 이어오며 여러차례 변모되다가 최근년간 자기의 모습을 또다시 일신하였다.

남포시안의 건설자들과 함께 태성리사람들은 소재지마을을 사회주의리상촌으로 훌륭히 전변시키기 위한 사업에 모두가 떨쳐나섰다.

하여 1년반 남짓한 기간에 전실과 살림방들, 세면장과 창고 등이 그쯘하게 갖추어진 110여동에 180여세대에 달하는 살림집들이 일떠서게 되였다.

그리고 종합편의시설인 태성원을 비롯하여 문화회관, 리인민병원, 농업과학기술보급실, 탁아소와 유치원 등 10여동의 공공건물들도 새로 건설되거나 개건되였다.

저녁이면 과일나무들이 우거진 집집마다에서는 농업근로자들과 그 자녀들의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그칠새 없다.

기쁨과 긍지에 넘친 그들의 모습은 태성리의 더 밝은 앞날을 약속하고있다.

사진 홍광남
글 최광호

고말산의 등대원들

조선동해안의 주요항구도시인 함경북도 청진시의 북동부를 감싸며 바다로 길게 뻗어나간 고말반도의 남동쪽끝에 한때 고말산등대라고 불리우던 청진등대가 솟아있다.

이곳의 종업원은 모두 4명, 주민수는 자식들까지 포함하여 겨우 10명 남짓하다.

주변의 경치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새하얀 색갈의 등대는 보는 사람모두의 감탄을 자아내지만 이곳에서 생활하는 등대원들의 수고에 대하여 헤아리는 사람은 별로 없다.

온종일 지어 며칠씩 가도 찾아오는 손님 한명 없군 하는 이 외진 곳에서 낮에 밤을 이어 등대를 지키고 배길표식시설들을 관리하는것이 전부인 그들의 생활은 얼핏 보면 단조롭고 따분해보인다.

그러나 자신들이 하는 일이 비록 평범한것일지라도 얼마나 중요한것인가를 깊이 자각하고있는 이곳의 등대원들이다.

바다를 항행하는 모든 선박들의 안전, 사람들의 생명이 다름아닌 그들의 역할과도 련관되여있는것이다.

하기에 이곳 등대원들은 사시장철 눈비가 오고 태풍이 몰아치는 속에서도 자신들의 책임을 다해가고있다.

그들은 서로의 지혜를 합쳐가며 등대를 알뜰히 관리하는것과 함께 전문가들과의 련계밑에 설비들의 현대화도 적극 내밀고있다.

그들의 노력에 의하여 청진등대는 깊은 밤에도 짙은 안개속에서도 잠들줄 모른다.

머나먼 항해길에서 돌아오는 선박들마다 어머니의 모습처럼 안겨오는 등대앞을 지나며 감사의 배고동소리를 높이 울리고있다.

사진 안철룡
글 박병훈

생물농약개발자

국가과학원 식물학연구소 실장 공훈과학자 유선옥

과학기술로 나라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하는 지식인들속에는 국가과학원 식물학연구소 실장 유선옥도 있다.

그가 생물농약개발이라는 생소한 분야에 발을 들여놓은것은 숙천농업단과대학(당시) 수의축산강좌 교원으로 일하던 1980년대 중엽이였다.

당시 농촌들에서는 어느 한 병해충에 의한 피해를 심하게 받고있었다.

알곡소출이 떨어지고 병해충구제를 위해 리용한 화학농약에 의해 지력도 낮아져 농민들의 고충은 이만저만이 아니였다.

유선옥은 이 문제를 자신이 직접 해결할것을 결심하였다.

그러나 당시 문헌들에는 화학농약을 제외하고 이 병해충을 죽일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지력도 보존하고 병해충을 없앨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고심하던 유선옥은 동물이 천적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것처럼 식물도 그러한 기능이 있다는데 생각이 미치게 되였다.

여기에서 착상을 얻은 그는 식물들의 성분학적특성을 밝혀내는 사업에 달라붙었다.

교육사업과 연구를 동시에 하자니 모자라는것이 시간이였다.

이때부터 그에게는 하루에 2시간 자는 습관이 생기였다.

살뜰한 안해, 따뜻한 어머니의 손길을 기다리는 가정일도 연구사업의 뒤전에 놓고 산과 들, 실험실에서 살다싶이하며 그는 1 000여종에 달하는 식물들의 성분분석을 진행하였다.

이에 토대하여 병해충을 죽일수 있는 200여가지의 식물원천을 찾아낸 그는 지체없이 식물성농약의 제조에 달라붙었다.

시험과 실패, 번민 그리고 또다시 착수…

그의 피타는 노력은 드디여 식물성농약 《명록》이라는 열매를 맺었다.

이 농약은 80여종의 병해충을 구제하는것으로 하여 농민들의 호평을 받았다.

그러나 유선옥의 연구사업은 끝나지 않았다.

수년후 그는 종자소독 등의 기능이 더 첨부된 식물성종합농약 《명록-3》을 내놓았다.

그리고 주체99(2010)년에는 국내의 생물자원을 리용하여 천연생물활성제를 개발하는데 성공하였다.

350여가지의 영양성분과 유기물질들이 조화롭게 들어있는 천연생물활성제는 작물이 공기중에 있는 질소와 생육에 필요한 영양성분들을 충분히 흡수할수 있게 하여 수확고를 훨씬 높여준다.

세계지적소유권기구에서는 주체106(2017)년 천연생물활성제를 세계적인 천연록색무공해유기복합비료로 공인하고 주개발자인 유선옥을 비롯한 연구성원들에게 발명가메달을 수여하였다.

그는 지금까지 9가지의 생물약들을 개발하였으며 그중 4건이 국내특허권을 받았다.

이런 공로로 그는 국가로부터 공훈과학자칭호와 과학자들에게 주는 최고상인 2.16과학기술상을 수여받았다.

유선옥은 65살인 오늘도 과학탐구의 길을 줄기차게 걷고있다.

사진 홍광남
글 김선경

주체106(2017)년 세계지적소유권기구에서는 천연생물활성제를 개발한 유선옥과 연구성원들에게 발명가메달과 증서를 수여하였다.

4련승의 주인공들

훈련의 쉴참에

상업성체육단의 교예체조선수들인 정금화, 로혜성은 녀자2인조형경기에서 국내 및 아시아의 최강자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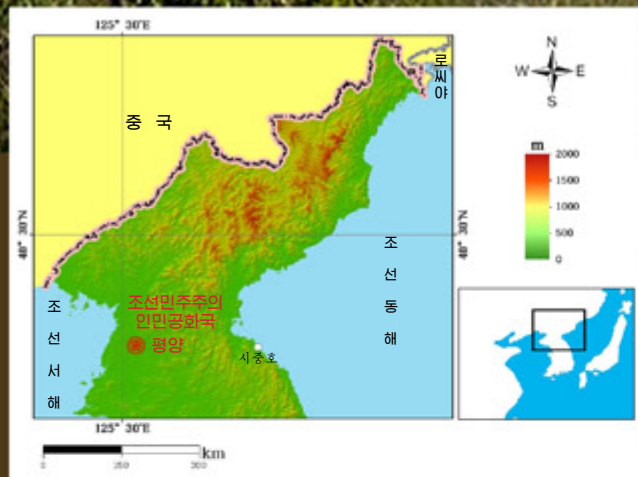
특히 밑선수인 정금화는 주체97(2008)년에 교예체조를 시작하여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내경기들에서 우승을 양보하지 않는 관록있는 선수이다.

그는 주체102(2013)년에 진행된 제8차 아시아교예체조선수권대회 녀자2인조형경기에서 금메달을 쟁취한 이후 지금까지 이 종목에서의 패권을 고수하여오고있다.

지난해 10월에 진행된 제11차 아시아교예체조선수권대회에서 다른 팀들을 아연케 하는 압도적인 실력을 발휘하고 제1위를 한 그들의 다음번 목표는 세계패권이다.

사진 신충일
글 정기상

조선의 동서해안에서 희귀종 조류번식지 발견

섬참새의 수컷과 암컷

섬참새의 번식지가 발견된 강원도 통천군 시중호기슭의 경관

긴다리도요의 번식지가 발견된 평안북도 신도군 비단섬의 습지

알을 품고있는 긴다리도요

참새과의 한 종인 섬참새는 지금까지 조선반도 중부이북지역에서의 번식활동이 관찰되지 않았었다.

그러던 주체107(2018)년 5월 우리 연구사들은 강원도 통천군 시중호주변의 주민지대와 린접한 산림구역에서 섬참새 암수 한쌍을 발견하였다.

시중호일대에서 섬참새가 서식할수 있다고 추측한 연구집단은 그후 이곳에서 적극적인 조사를 진행하여왔지만 올해초까지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5월 중순부터 말까지 시중호뿐아니라 그 북쪽에 있는 동정호철새(습지)보호구(동정호, 천아포지구)까지 포함하는 넓은 지역에 대한 정기적인 조류조사과정에 마침내 섬참새의 번식활동을 확증할수 있었다.

최근년간 우리 연구집단은 조선서해의 비단섬에 설정된 신도철새(습지)보호구에서 진행된 긴다리도요에 대한 조사에서도 진전을 이룩하였다.

동아시아-오세안주철새이동경로에 위치한 이 일대에서 긴다리도요가 단지 절기에 따라 이동하기만 하는것이 아니라 번식할수도 있다는 가설은 이미부터 제기되였으나 그를 립증할 조사기록은 여직 없었다.

그러다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6월말부터 7월초까지 현지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긴다리도요의 번식활동을 처음으로 관찰하게 되였다.

국가과학원 생물다양성연구소 실장 리충성

사진 리충성, 류진, 김경철, 박대범

모란봉의 옛 건축물들

금시 피여나는 모란꽃을 방불케 한다 하여 그 이름이 유래된 평양의 모란봉에는 조선민족의 슬기와 재능이 깃든 력사유적들이 많다.

특히 고구려(B. C. 277년-A. D. 668년)시기에 쌓았던 평양성의 유적들이 적지 않은데 을밀대와 최승대, 칠성문, 전금문, 현무문 등이다.

을밀대와 최승대는 외적의 공격으로부터 성을 방위할 때 적을 감시하고 군사들을 지휘하던 장대였다.

평양성의 북쪽 장대인 을밀대는 그후 조선봉건왕조(1392년-1910년)시기인 1714년에 고쳐 지은것이다. 축대의 높이가 11m이지만 네모나게 다듬은 돌로 밑부분은 계단모양으로 형성하고 우로 올라가면서 약간 안으로 오무라들게 정교하게 쌓아올린것으로 하여 실제보다 더 높아보이면서 장중하고도 안전한감을 준다.

모란봉의 정점에 세워져있는 최승대도 산봉우리에 세운 건축물의 특성이 살아나게 화려한 루정같이 지었다.

칠성문은 고려(918년-1392년)때에 고쳐 짓고 1711년과 1764년에 또다시 개건하였다.

칠성문

량쪽성벽을 10m쯤 어기여 쌓고 그사이에 성문을 모로 배치하였으며 밖으로 내민 성벽을 좀더 돌출시켜 그것을 옹성으로 삼은것이라든가 무지개문길안과 그앞에 급한 비탈길을 내여 오르내리기 힘들게 만든것이 다른 성문들과 구별된다.

청류벽아래 대동강나루와 잇닿아있던 관문인 전금문은 앞에서 잘 보이지 않는 자리에 성벽을 앞뒤로 어기게 쌓은 다음 그 짬에 성벽과 직각되게 쌓은 특이한 형식의 성문이다.

현무문은 평양성의 북쪽 성문으로서 지금의 것은 1714년에 다시 세운것인데 최승대가 서있는 봉우리와 을밀대가 서있는 봉우리사이의 제일 낮은 지점의 성벽을 어기게 하고 그사이에 성벽과 직각으로 세웠다.

부벽루도 모란봉의 유명한 력사유적의 하나이다.

393년 불교사찰인 영명사의 부속건물로 지은 루정으로서 영명루라고 부르다가 12세기초부터 거울같이 맑고 푸른 물이 감돌아흐르는 청류벽우에 둥실 떠있는듯한 루정이라는 뜻에서 부벽루라고 고쳐 부르게 되였다. 임진조국전쟁(1592년-1598년)때 왜적에 의하여 불탄것을 1614년에 다시 세웠다.

이밖에도 영명사터와 8각5층탑, 청류정 등 모란봉의 도처에 있는 력사유적들은 오늘 공화국의 민족문화유산보존정책에 의하여 소중히 보존관리되고있다.

사진 최원철
글 김미예

을밀대

최승대

청류정

현무문

부벽루

낸곳 : © 조선화보사 2020 주소 :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편집 서철남 13606-2080212
화보《조선》은 인터네트《조선의 출판물》홈페지에 조선어, 중어, 로어, 영어, 프랑스어로 게재됩니다.
http ://www.korean-books.com.kp 전자우편(E－mail) : flph@star－co.net.kp
뒤표지: 해칠보의 만물상 사진 홍훈